난파선 선원 환대했던 신안 비금도서 ‘172년전 프랑스와 조선의 만남’ 재현

파리 시테대학 에마뉘엘 후 교수 신안군 초청으로 난파 현장 답사 군, 한불 공원·자매결연 등 추진

1851년 프랑스 포경선 나르발(Narval)호 난파 사건과 관련 지난 23일 비금도를 찾은 파리 시테대학의 피에르 에마뉘엘 후 교수를 포함한 답사팀이 현장 답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72년 전 프랑스와 조선의 만남’이 신안 비금도 현장에서 재현됐다.

신안군은 1851년 프랑스 포경선 나르발(Narval)호 난파 사건과 한불 외교사를 연구해 온 파리 시테대학의 피에르 에마뉘엘 후 교수를 초청해 지난 23~24일 이틀간 비금도 현지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초 프랑스의 한국대사관 행사를 통해 알려진 ‘172년 전 프랑스와 조선의 만남’은 1851년 4월 비금도 앞바다에서 난파된 포경선 선원들과 섬사람들의 대면에서 시작됐다. 푸른 눈과 이상한 옷차림의 낯선 이국인들을 대면한 비금도 사람들은 두려운 눈으로 대치해야 했고 목포만호, 나주목 등의 관리들이 섬을 찾아왔지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다.

선원들은 한 달 동안 비금도의 ‘서면 율내촌(현 내촌마을)’에 머물렀으며, 중국 상해에 있던 프랑스 영사 몽티니의 원정대가 비금도에 도착할 무렵 조선 왕실에서도 표류 선원들의 송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비금도에서 만난 몽티니 영사와 이정현 나주 목사는 극적인 송환 협상에 성공했고 이를 자축하기 위한 만찬이 비금도 내촌마을과 원정대의 선상에서 펼쳐졌다.

서구열강의 문호 개방 압력에 쇄국으로 맞서던 19세기 위험스러운 조선의 바다에서 프랑스와 조선의 우호적인 외교 협력이 가능했던 까닭은 오래전부터 난파된 표류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던 섬사람들의 포용과 평화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불 외교 협력의 역사적 현장을 찾기 위해 답사팀은 신안군 행정선을 이용해 신안군 비금도 서북쪽의 해상에서 ‘예미포(현 이미해변)’를 살펴보았다.

또 본선이 난파된 후 작은 보트 3척을 타고 해안을 따라 내려가 정박한 ‘세항포(현 월포해변)’, 선원들이 머물렀던 내촌마을 등을 방문했다.

비금도 답사 중 에마뉘엘 교수 일행을 만난 박우량 신안군수는 “나르발호 및 선원들과 비금도의 인연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 현지 연구자 및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에마뉘엘 교수는 “나르발호는 1836년 무렵 프랑스 남부의 바욘(Bayonne)에서 건조되어 이곳 비금도에서 난파됐으니 그 인연을 통해 교류해 볼 것”을 제안했다.

한편, 신안군은 비금도와 프랑스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당시 만찬에 사용됐던 옹기 술병을 수집하고 있으며, 막걸리와 샴페인을 나누며 우의를 나눈 것을 기념하기 위한 한불 교류 공원, 샴페인 박물관 조성, 프랑스 바욘시 자매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아리랑상품권 추석 맞이 10% 할인 판매

진도군이 추석을 맞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9월1일부터 ‘진도아리랑상품권’<사진>을 10% 할인 판매한다.

할인 판매는 총 35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지역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살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농·축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18개 금융기관에서 1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모바일 앱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에서도 연중 10%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 판매가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영광군 농촌 공동체 ‘여민동락’ 신축 이전

영광군 묘량면에서 최근 열린 ‘여민동락 공동체 새 터전 이전식’에서 참석자들이 신축 이전을 기념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농촌 공동체를 위한 복합공간 ‘여민동락’이 신축 이전했다.

영광군은 최근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 새 터전 이전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전식에는 강종만 영광군수와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여민동락 후원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축은 동락점빵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지상 1층 연면적 1467㎡, 건축면적 489.23㎡의 규모로 지어졌다.

노인복지센터와 공유식당, 사회적 농업·청년 창업 활동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농촌 공동체인 여민동락 공동체는 지난 2007년부터 16년간 활동해왔다. 행안부 주관 우수마을기업 등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지역민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을 위해 노력하는 여민동락 대표와 구성원들에 감사를 전한다”며 “영광군도 사회적 경제와 가치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신우철 완도군수가 수산물 소비 촉진 릴레이 챌린지에서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수산물 소비촉진 사활 건다

릴레이 챌린지·어가 돕기 판촉전 군민·향우 등에 전복 할인 판매

완도군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우리 어민들과 수산물 취급 업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복 등 수산물 소비 촉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완도군은 경기침체와 전복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생산 어가를 돕기 위해 릴레이 챌린지와 전복 소비운동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완도군청, 완도군의회와 각 기관·사회단체, 향우회 등이 참여하는 ‘완도 수산물 소비 촉진 릴레이 챌린지’를 전개한다.

챌린지는 신우철 군수를 시작으로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이 이어받아 완도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강조하며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군민 동참 119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1 가구당, 전복 1 ㎏을 9회 구입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어가에 힘을 실어주고 군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다.

9월1일부터 8일까지는 다른 크기의 전복에 비해 적체돼 있는 전복 11미~13미를 판매하기 위해 ‘전복 생산 어가 돕기 판촉전’을 추진한다.

판촉전은 군민과 향우, 완도군 주요 자매결연 도시를 대상으로 전복 1㎏를 2만9000원, 2㎏는 5만50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전복 주문은 한국전복유통협회로 하면 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군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전복 소비 촉진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경찰 외국인 범죄 선제 대응 합동 캠페인

영암경찰이 자율방범대와 함께 외국인 범죄 선제 대응을 위해 대불산단에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대불산단 주변에 체류하는 외국인들 여러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모습에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을 위해 실시됐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체감 안전도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구역별(용앙, 용당) 동시다발적 순찰 활동을 통해 흉기 난동·마약범죄·음주운전 등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한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득 영암경찰서장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등 각종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